

# 명분도 실리도 잃은 KBO 올스타전 결국 취소

프로야구 ‘코로나 사태’에

실행위원회 열고 결정

야구팬 “당연한 일” 환영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취소

2021 KBO 올스타전이 취소됐다. 야구팬들은 모처럼 KBO의 결정을 반겼다.

KBO(총재 정지택)가 20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올스타전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다.

KBO는 “올스타 팬 투표가 이미 완료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고 있고 최근 리그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돼 최종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코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KT에서 20일 1군 선수 1명 포함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이었던 NC 선수단에서도 추가로 1명이 확진자가 됐다.

KBO는 추후 팬투표를 통해 선정된 올스타를 발표하고, 베스트12에 선정된 선수에 대한 개별 시상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일 예정됐던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과 라이징 스타와의 경기도 취소했다.

10개 구단에서 모인 선수들이 한 팀을 구성해 경기를 할 경우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IA에서는 외야수 최원준과 이진영, 투수 정해영이 라이징 스타로 이름을 올렸다.

대신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한 팀 선수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구단과의 평가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예정됐던 키움과의 평가전은 그대로 진행된다.

KBO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출범 이후 처음 올

스타전을 취소했다. 대신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 형식으로 ‘별들의 잔치’를 펼쳤다.

지난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리그를 완주한 KBO는 올 시즌에는 올스타전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팬투표도 진행했다.

하지만 두산·NC에서 시작된 ‘KBO 코로나 사태’가 잔칫날까지 망쳤다.

앞서 KBO가 특정팀의 이익에 따라 리그 중단을 결정한 만큼 ‘이벤트 행사’인 올스타전을 강행할 명분이 없었다.

KBO는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NC와 두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리그 일정이 어렵다는 측의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형평성’ 논란 속 코로나19 매뉴얼까지 뒤집으면서 리그 중단을 결정한 만큼 야구팬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기에 NC 선수들의 코로나 확진이 외부인이 참석한 ‘월정 숙소 술판’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어 키움·한화 선수단도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게 확인돼 KBO리그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실상가상 방역 수칙 위반 논란 속 허위 진술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NC, 한화, 키움 선수 등이 고발되기도 했다.

리그 중단의 또 다른 촉인 두산은 지난 18일 자제훈련 당시 그라운드에 외부인을 출입시켜 KBO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리그 중단 사태에 이어 선수들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면면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팬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무관중 올스타전을 넘어 무관심 올스타가 예고된 만큼 명분도 실리도 잃은 올스타전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종, 빅리그 복귀 험난하네

트리플A서 5이닝 7안타 3실점…평균자책점 5.47

양현종(33)이 빅리그 복귀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마이너리그에서도 좀처럼 구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트리플A 팀 라운드록 익스프레스에서 뛰는 양현종은 20일 열린 새크라멘토 리버캐츠와의 방문경기에서 5이

닝 동안 7안타와 1볼넷으로 3실점 했다.

삼진을 6개 잡았지만, 실점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평균자책점이 5.47로 올랐다.

양현종은 1회말 삼자범퇴로 가볍게 출발했다.

2회말에는 조이 바트와 아스메디 알칸타라를 연속 삼진으로 잡은 뒤 미첼 톨만에게 볼넷을 내줬

지만, 후속타자 브라이스 존슨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워 이닝을 마쳤다.

1-0으로 앞선 3회말에는 2사 후 브래던 비숍에게 제2안타를 허용했으나 후속 타자를 역시 삼진으로 잡았다.

잘던지던 양현종은 4회말 동점을 허용했다.

선두타자 조 맥커시에게 2루타를 허용한 양현종은 1사 후 알칸타라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아 1-1이 됐다.

양현종은 톨만에게도 중전안타를 맞아 1사 1-2루에 몰렸으나 존슨을 유격수 병살타로 유도해 추

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5회초 라운드록이 다시 1점을 뺏으며 2-1의 리드를 잡았지만 양현종은 5회말 갑자기 무너졌다.

양현종은 1사 1루에서 비숍에게 중월 3루타를 두들겨 맞아 2-2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마무리시 오 두본은 우익수 직선타로 잡았지만 맥커시에게 2루타를 허용해 2-3으로 역전당했다.

양현종은 계속된 위기에서 바트를 삼진으로 잡아 5회를 마치고 교체됐다. 라운드록은 6회초 3-3 동점을 만들어 양현종의 패전은 사라졌다. 팀은 7-5 재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K리그가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펼치면서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K리그1 9라운드 경기에서 ‘NO플라스틱 댄스’ 세리머니를 선보인 제주 선수들(왼쪽)과 지난 7일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K리그 그린 킥오프 캠페인’ 미디어 데이 행사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K리그에 부는 녹색 바람… ‘ESG 경영’ 앞장

탄소 절감량 만큼 기부금 조성

플라스틱 재활용 유니폼 등

‘그린킥오프 캠페인’ 시작

K리그 그라운드에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ESG 경영은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계의 관심에 발맞춰 K리그도 ‘ESG’를 그라운드로 가져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한국 스포츠단체 중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참여했다. 7일에는 친환경 캠페인 ‘K리그 그린킥오프 캠페인’을 시작했다.

‘K리그 그린킥오프 캠페인’은 경기장 내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주요 과제로 한다.

연맹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기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일부 경기장부터 시범 적용한 뒤 전 경기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리그 후원사들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타이틀스폰서인 하나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절감된 탄소량만큼 기부금을 조성한다. 오피셜스폰서 현대오일뱅크는 경기장에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으로 MD상품을 제작하는 ‘현대 엑스티어 에코캠페인’에 나선다.

K리그 구단들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 올 시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프라이블루’ 소재로 만든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수원 선수들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플라

스틱 업사이클 축구스타킹’을 신고 뛰고 있다.

제주도 9월부터 홈구장 안팎에서 수집된 ‘폐PET병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만든 친환경 유니폼을 착용할 예정이다.

경기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포항은 홈경기 날 스탠딩인스 텀블러 500개를 배부하고, 성남은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관중에게 성남FC가 각인된 리유저블 스탠딩인스 빨대를 선착순 증정한다. 대전도 개인 텀블러 사용을 인종하는 ‘선(善)블라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NO플라스틱’ 캠페인을 펼치는 제주는 NO플라스틱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선수들은 플라스틱 재활용법을 댄스로 표현한 단체 세리머니도 선보였다.

또 포항은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쉬운 무코팅 중

이유로 응원 클레퍼 2000장을 만들어 배부했다. 수원FC도 식복일을 앞두고 친환경 클레퍼와 박주호의 손편지가 담긴 미니화분 250개를 팬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강원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플로깅(Plogging·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캠페인을 열고 참가자에게 ‘강원FC 친환경 플로깅 키트’를 증정했다.

서울이랜드는 지난 5월 ‘아름다운 가게’와 ‘환경의 날’ 기념 캠페인’을 열고 팬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잡화, 도서, 가전제품 등 총 611점을 판매해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이날 기증품 판매를 통한 탄소 배출 절감 효과는 총 3361kg에 이른다.

대전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전도 시청도공사와 협약을 맺고 경기 관람객들에게 귀갓길 철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아산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푸터라페(푸터라고 라벨라고) 탄소중립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K리그 구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ESG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동강대 준우승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동강대학교가 ‘제76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가 20일 보은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성균관대에 2-16으로 패했다.

지난 2016년 전국대학야구대회 하계리그 3연패 이후 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 동강대는 마운드 난조로 일찍 승기를 내졌다.

0-7로 뒤진 5회초 1사 1-2루에서 유지웅의 적시타로 침묵을 깼지만 이후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우승컵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동강대는 올 시즌 선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10월 경북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동강대는 지난 4-6월에 열린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U리그에서 조 2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해 8강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골퍼’ 박찬호

### 두번째 도전

야마하·오너스K 오픈 출전

‘장외 장타왕’ 박찬호(48)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무대에 두 번째 도전장을 냈다.

박찬호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태안군 솔라고 컨트리클럽 솔 코스(파72)에서 열리는 코리아투어 야마하·오너스K 오픈(총상금 5억원)에 출전한다.

프로 선수가 아닌 박찬호는 대회 주최 측 초청으로 대회에 나온다.

올해 4월 KPGA 군산CC오픈에 이어 두 번째 코리아투어 대회 출전이다.

군산CC오픈에서 2라운드까지 29오버파를 쳐 끝까지 컷 탈락했던 박찬호는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특히 다른 대회와 달리 변형 스테이بل포드 방식이라서 박찬호의 컷 통과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변형 스테이بل포드 방식은 엠베르토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을 부여하고 파는 0점, 보기는 1점 감점, 더블보기 이하는 모두 3점을 깎아 점수 합계로 순위를 가린다.

보기로 잃는 점수보다 버디로 얻는 점수가 더 크고, 파는 점수에 보합이 안되는 방식이라 선수들은 버디 또는 이글을 노리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

코리아투어 대회 사전 이벤트에서 331야드를 때려 내로라하는 장타자들도 제친 박찬호의 장타력과 변형 스테이بل포드 방식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시즌 2승 경쟁도 뜨겁다. 올해 코리아투어에서는 8개 대회 챔피언의 얼굴이 모두 다르다.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등 주요 기록에서 모두 1위를 제한 김주형(19)도 SK탈레콤오픈 우승뿐 아직 2승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3년 우승 갑옷을 벗은 코리아투어 통산 상금 1위 박상현(38)은 내친 김에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북병은 김성현(23)이다.

작년 KPGA 선수권대회 제패에 이어 지난 4일 일본프로골프투어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성현은 일본프로골프투어가 쉬는 사이 국내 원정에 나섰다. 일본프로골프투어 18홀 최소타 기록(58타)을 세울 만큼 뜨겁게 달아오른 샷이 1년 만에 나서는 국내 무대에서 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가죽 같은 회사로 모입니다

7월 21일 대개봉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블랙 위도우                                    |
| 2관      | 블랙 위도우                                    |
| 3관      |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아이스 로드 스페이스 행: 새로운 시대 |
| 4관      | 보스 베이비 2                                  |
| 5관      | 보스 베이비 2                                  |
| 6관      | 랑종                                        |
| 9관      | 랑종                                        |
| 7관 씨네커풀 |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위스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 8관 씨네커풀 | 방신제한, 아이스 로드 옥스포드 살인사건, 나만 보이니            |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